

마지막 한마디



오세익 · 편집주간

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첫째 뱉어 버린 말, 둘째 쓰아 버린 화살, 셋째 잃어 버린 기회, 넷째 흘러 간 세월을 끄는 교훈이 있다.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죽음만큼 확실하게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누구나 한번은 분명하게 맞이하게 되는 명제도 없다. 말기 환자들의 생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호스피스 간호사인 최화숙씨가 쓴 「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」 인생의 마감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 만날 것인가? 라는 책을 읽으면 삶의 의미를 음미하게 해준다.

이 책에는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 남긴 말이 소개되고 있는데 '남북통일도 못보고' 간다는 한 맺힌 노인이 있는가하면 '난 죽기 싫어요' 라고 미련과 집착을 보이는 돈많은 사람, 어린자녀를 남겨둬야 하는 '제발 살고 싶어요' 라는 호소, '할 수 없지요 뭐' '천국에서 만나요' 라며 담담하게 하직하는 이들도 있다.

특히 '이럴줄 알았으면 좀더 선하게 사는건데' 라고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와 닿는다. 사실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훌쩍 떠나면 그만인데 너무 쫓기듯 살아간다면 매사에 아옹다옹 하면서 사는 인생도 제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.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만 이윤을 얻는 과정이나 이윤을 배분하는 결과에 따라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이에만 몰두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잊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. 세상에는 여차하면 갈등만 조장하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대리만족을 얻고자하는 사람들도 더러있다.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판단력을 지닌 구성원보다 부정적이고 대안없는 비판을 일삼는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.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양식도 다양하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끄러움을 읽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실패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.

인쇄업계의 여러사정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규모나 시장의 불륨이 커진 것 또한 현실이다. 이제는 인쇄문화인으로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명감과 함께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. 그 어려운 인쇄문화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게 된다면 너무나 쓸쓸한 결과가 아닐까?

남을 돕는 일에도 더 많은 인쇄문화인들이 앞장서고 인쇄단체와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더 많은 투자와 참여로 보람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.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인생의 마감시간에 무엇이 되어 만날것인가를 생각해 보는것도 의미가 아주 없는 일인 것 같지는 않다.